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25년 12월 16일 사 진 : 포함 (2매)	작성과	고흥군의회의회사무과
		담당부서	과 장 : 정상태 팀 장 : 이정묵 담당자 : 김시현
		연락처	061)830-5032

고흥군의회 2026년도 예산안 9,129억 원 확정..불요불급 예산 정비

39억 7천만 원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조례안 의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도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5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당초 제출된 9,169억여 원에서 39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한 9,129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군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정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전명숙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임금 차등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제 도입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언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예산안과 조례안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군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군의회는 오늘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19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고흥고등학교 학생 11명이 방청석을 찾아 의정활동을 직접 참관하며 지방자치와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의정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박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고흥군 부군수)